

자동차산업

기대에 부합하는 4월 중국 판매 발현 중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4월 첫 주 중국 소매판매 일평균 35,321대 (+8% YoY, 이하 YoY)

지난 3월 5일 발표된 ‘증치세 (VAT) 인하’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4월 첫 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했다. CPCA는 청명절 연휴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소매판매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4월 첫 주 중국 도매판매 일평균 34,830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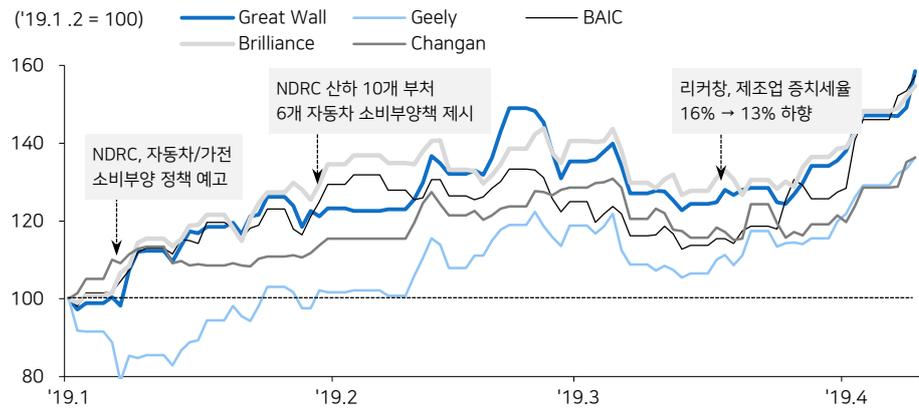
기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소매판매와 달리 4월 첫 주 도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이는 1) 전년동기 도매판매 성장률이 +13%로 기저효과가 존재했으며, 2) 지난 3월말 4월 수요확대를 예상한 딜러의 재고확보가 다소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5,000대에 근접한 도매판매 수준은 17년 동기의 32,829대나 16년 33,875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4월 이후의 수요회복 기대감 반영해 중국 로컬OE 업체 주가 회복세 지속 중

금일 CPCA 판매결과 발표를 앞두고 판매호조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홍콩 및 상해 증시에서 거래 중인 중국 주요 로컬OE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Great Wall +6.4%, Changan +7.0%, BAIC +2.6%, Geely +2.2%, Brilliance +1.9%). 연초부터 지속된 중국 정부의 자동차 수요부양 노력과 정책발현으로 이들 주요 로컬OE 업체들의 주가는 1월 8일 (NDRC 정책발표 예고일자) 이후 각각 +25-73% 상승한 상황이다.

모든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증치세 인하효과는 현대·기아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국 로컬OE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시장수요 회복 기대감이 지속 실현된다면 중국 손익을 연결실적으로 반영 중인 국내 부품업체들에 대한 관심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1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연초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로컬 OE 업체들의 주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